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농수산물도매시장 仲買人の 商活動과 競争構造 분석*

서울시 可樂洞도매시장을 중심으로

許 吉 行** 李 宗 根***

1. 서 론
2. 도매시장 仲買人の 기능
3. 可樂洞 도매시장과 仲買人 현황
4. 仲買人の 競争構造
5. 요약 및 결론

1. 서 론

1994년 5월초 仲買인이 商行爲를 중지함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이 일시 중지된 소위 「농안법」파동이란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여론은 중매인들이 국민의 생명줄인 식품을 담보로 집단행위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農安法)에는 仲買인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상품을 중개하는 仲介商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仲買인은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수산물을 자기책임하에 평가구입하는 都賣商의 역할을 해 왔다. 즉, 仲買인은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평가구입하는 商人集團으로서 도매시장의 거래와 價格形成을 주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다. 현실적으로 仲買인이 도매시장의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仲買인의 능률화는 도매시장의 능률화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도매시장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仲買人間에 유효한 경쟁구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仲買인의 실태와 商行爲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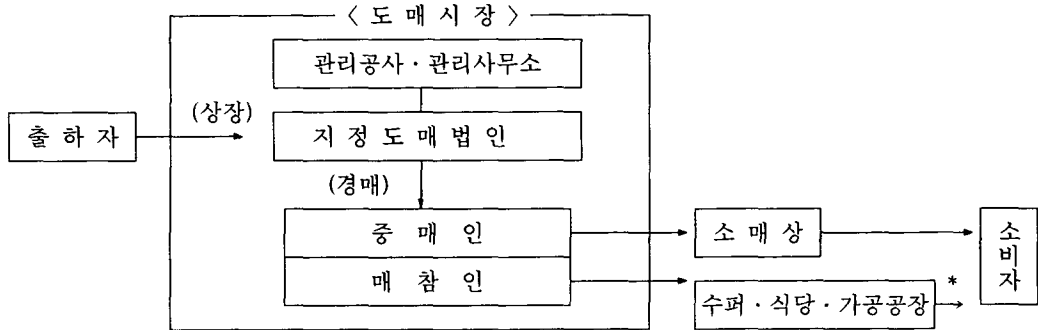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可樂洞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매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商行爲와 경쟁구조를 종합분석함으로써 장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개선과 관련한 중매인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 새로 개정된 農安法에서는 명칭이 仲都賣人으로 바뀌었음.

** 부연구위원

*** 서울특별시 도매시장관리공사 부장

그림 1 농안법상 도매시장 운영체계



* 이 경우 수퍼·식당·가공공장은 일반적으로 매참인의 소유 또는 가맹점임.

중매인 육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대상은 연도중 취소된 중매인을 제외하고 1993년말을 기준으로 영업중인 1,491명의 청과 및 수산물 중매인으로 했으며, 분석자료는 指定都賣法人의 「중매인 거래실적보고」를 그대로 — 실제거래액과 동이한지 대조하지 않고 — 사용하였다.

2. 도매시장 仲買人の 기능

農安法상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은 指定都賣法人이 운영하는 시장에 上場하며, 원칙적으로 競賣를 통해 중매인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그림 1). 따라서 指定都賣法人은 都賣商이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서비스業者이며, 主收入源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출하자에 대한 판매, 대금지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上場手数料이다.

仲買人은 指定都賣法人으로부터 농수산물

을 구입한 후, 도매시장내 賣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소매상 또는 大量消費者에게 상품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農安法상 仲買人은 상품의 매매를 통해 賣買差益을 취득하는 都賣商이 아니라 상품을 중개해 주고 買受者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仲介業者이다. 그러나 仲買人은 도매시장에서 仲買業 허가를 받아 競賣에 참가해서 上場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都賣商의 역할을 해 왔다.¹

仲買人 중에는 일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실제로는 출하자로부터 상품을 受託 받은 후 출하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주거나 產地에서 발매기 등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상

¹ 개정된 現行 農安法에서는 소비자 중매인의 수탁매매, 수집매매, 도매행위 등 自己名義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고 仲介행위만을 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지난 5월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소위 「農安法 파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 仲買人의 도매행위는 인정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향에서 農安法의 재개정되었다.(1994.11)

품을 구입한 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仲買人이 있다. 이러한 중매인을 委託仲買人이라고 부르는데,² 이러한 상행위는 유사도매시장의 委託商과 동일한 것으로서 출하된 농수산물을 指定都賣法人에 上場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점에서 農安法에 위배되는 것이며, 指定都賣法人의 기능과 중복되어 상인간의 알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거래방법이 수익매매이기 때문에 競賣제도 정착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農安法 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중매인의 발매기 및 受託판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仲買人은 賣參人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상에서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수산물을 구입·판매하는 유일한 合法的 流通主體라고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에서 價格決定者의 역할을 한다. 또한 仲買人은 경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小賣商 등의 수요에 맞추어 分荷供給해 주며, 이 과정에서 하역, 저장, 소매포장, 配送, 1차加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입자에게 信用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仲買人은 도매시장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금력과 상품分散 능력이 큰 우수한 仲買人을 다수 확보하는 것은 도매시장 활성화의 요체가 된다.

仲買人이 가격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품질에 대한 정확한 판별 능력과 需給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정가격수준을 신속히 결정하는 평가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고정판매망의 관리 및 점포의 경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도매시장에는 仲買人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賣參人이 있다. 大量消費者인 賣參人은 管理公社에 등록한 후, 仲買人과 동등한 자격으로 競賣에 참가하여 자기가 필요한 상품을 직접 구입한다. 賣參人은 자기가 구입한 상품을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점포가 필요 없다는 점이 仲買人과 다르다.

도매시장에 賣參人을 두는 것은 가공업자, 슈퍼마켓이나 대형식당 운영자, 단체급식소 등 大量消費者가 仲買人을 통하지 않고 직접 競賣를 통해 상품을 구입토록 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賣參人이 경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賣參人의 競落비율은 매우 낮아 제도적 정착이 미흡하다.³ 그리고 지정도매법인 중에는 定員의 제약으로 중매인을 더 증원할 수 없는 경우, 분산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매참인을 등록받기도 하는데, 이들 매참인은 상기능상 仲買人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

³ 1993년 청과 및 수산물 賣參人의 도매거래실적은 672억원이다. 이중 순수 賣參人이라고 할 수 있는 流通業體의 실적은 17.8%인 672억원으로 전체 거래실적 14,694억원의 0.8%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실제 競賣를 통해서 직접 구입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

⁴ 1990년 5월 가락동도매시장의 賣參人은 청과 392명, 수산 34명, 축산 9명 등 총 435명으로 1985년 개장 당시 260명에 비해 175명이 증가했다. 청과물 賣參人 392명중 大形流通業體의 賣參人은 1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仲買人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類似仲買人」이었다(성배영 외 1990:114). 1993년 말에는 賣參人이 총 266명으로 감소했으며,

² 1993년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총 1,491명의 중매인이 있으며, 이들중 많은 인원이 委託仲買人으로 간주됨(표 9 참조).

표 1 가락동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실적

단위: 취급량 : 천톤, 거래금액 : 억원

부류별	취 급 량			거 래 금 액		
	1986	1990	1993	1986	1990	1993
청과물	1,109	1,704	2,167	2,227	4,934	11,113
수산물	124	155	191	1,870	2,489	3,581
축산물	18	66	68	598	2,229	2,246
계	1,251	1,925	2,426	4,695	9,652	16,940
	(100)	(154)	(194)	(100)	(206)	(361)

주 : ()내는 1986년 기준 指數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93년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1994. 3.

3. 可樂洞 도매시장과 仲買人 현황

3.1. 可樂洞 도매시장 개황

可樂洞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동 도매시장)은 政府가 公共投資에 의해 최초로 건설한 동양최대의 현대적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1985년 6월 그 開設은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可樂洞 도매시장은 서울은 물론 首都圈의 中心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전국 농수산물 가격 형성에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장의 시설규모를 보면 부지면적은 543,069㎡(164,277평)이고 건물은 47개동 총 252,675㎡(76,434평)이다. 1993년 청과물 2,167천톤을 포함하여 연간 2,426천톤의 농수산물을 취급했으며, 거래금액으로는 16,940억원을 취급했다. 이는 개장초기와 비교하여 물량면에서 1.94배, 금액면에서 3.61배로 증가된 것이다<표 1>.⁵

1994년 8월말 현재 213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중 순수 賣參人이라고 할 수 있는 流通業體는 19%에 해당되는 34명뿐이다.

종사자수를 보면, 可樂洞도매시장내에는 1993년 총 4,405개의 業體에서 2만여명의 종사자가 商活動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534명이 중매인이다<표 2>. 1일 평균 도매시장 利用人員은 158.7천명, 利用車輛은 53.3천대로 조사되었다(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94, pp.449).

3.2. 仲買人 현황

1993년 축산물취급 仲買人을 제외한 청과물 및 수산물 취급 仲買人은 1,491명으로 처음 인가된 1,679명보다 188명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개장 후 시설부족 해소와 仲買人의 規模化를 통한 영업여건을 개선하기 위

⁵ 당초 서울시에는 가락동도매시장을 포함하여 4대권의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며, 기본설계시 가락동 도매시장의 청과물 1일 적정취급량은 3,030톤이었다. 그러나 다른 도매시장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1993년도 청과물 1일 평균 취급량은 7천여톤에 이르고 있으며, 盛出荷期에는 1일 1만톤을 넘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시장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대부분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시설규모에 비한 농수산물의 과다한 반입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4대권 도매시장의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가락동도매시장내 유통업체 수, 1993

단위: 개소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지정도매법인	9	5	3	1
중 매 인	1,534	1,091	400	43
직 판 상 인	1,796	1,366	430	-
관 련 상 인	183	130	53	-
매 참 인	266	243	17	6
기 타*	617	298	128	191
계	4,405	3,133	1,031	241

* 가공업체, 임대사무실, 식당 등 부대시설입주자

** 종사자를 포함한 상주유통인은 2만여명으로 추산됨.

자료 : 앞 표와 같음.

표 3 연도별 중매인 수

단위: 명

부 류	당초*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청 과	1,220	1,060	1,009	993	927	916	914	1,094	1,091
수 산	459	424	417	412	402	407	403	395	400
계	1,679	1,484	1,426	1,405	1,329	1,323	1,317	1,489	1,491

* 1985년 6월.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해 管理公社가 매년 仲買人을 감축 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1992년에는 部類別로 적정 수의 仲買人을 운용하고자 중매인 정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仲買人 수의 증가가 있었다(표 3).

이를 部類別로 보면 전체 仲買人의 73.2%인 1,091명이 청과물중매인이고 나머지 26.8%에 해당하는 400명이 수산물중매인이다. 청과물중매인 중 58.0%인 633명이 채소중매인이며, 과일중매인은 42%인 458명이다. 한편, 수산물중매인은 건어물중매인이 62.2%에 해당하는 249명이고, 나머지는 선어중매인 21.5%(86명), 패류중매인 16.3%(16.3%)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중 52명의 중매인이 허가취소되고, 54명이 신규로 허가를 받아 전년에 비해 2명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乾魚仲買人이 7명 증가했기 때문이다(표 4). 1993년 중매인의 연간 流動率은 3.6%로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중매인이 완전교체되는 데에는 27.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仲買人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93년 45~54세의 연령층이 671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仲買人의 45.0%를 차지하며, 40세 이하의 젊은 층은 186명, 12.5%로 60세 이상의 중매인 수와 비슷하다. 이를 1987년과 비교해 보면 중매인의 高齡化 현상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즉 중심 연령층이 40대 후반에

표 4 중매인 부류별 현황 및 증감내역

단위: 명

부류별	1992		1993		증 감 내 역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원	허가	취소
과실	459	42.0	458	42.0	-1	25	26
채소	635	58.0	633	58.0	-2	10	12
청과물 계	1,094	(73.5)	1,091	(73.2)	-3	35	38
선어	88	22.3	86	21.5	-2	3	5
패류	65	16.4	65	16.3	0	1	1
건어	242	61.3	249	62.2	7	15	8
수산물 계	395	(26.5)	400	(26.8)	5	19	14
총 계	1,489	(100.0)	1,491	(100.0)	2	54	52

자료: 앞 표와 같음.

표 5 가락동 도매시장 중매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30세 미 만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	55 - 59세	60 - 69세	70세 이상	계
1987. 1	13 (1.2)	83 (7.6)	136 (12.4)	205 (18.7)	287 (26.2)	170 (15.5)	98 (9.0)	64 (5.9)		1,094 (100.0)
1993.12	9 (0.6)	51 (3.4)	126 (8.5)	241 (16.2)	304 (20.4)	367 (24.6)	208 (14.0)	163 (10.9)	22 (1.5)	1,491 (100.0)
청과	7 (0.6)	39 (3.6)	96 (8.8)	167 (15.3)	212 (19.4)	269 (24.7)	154 (14.1)	129 (11.8)	18 (1.6)	1,091 (100.0)
수산	2 (0.5)	12 (3.0)	30 (7.5)	74 (18.5)	92 (23.0)	98 (24.5)	54 (13.5)	34 (8.5)	4 (1.0)	400 (100.0)

자료: 앞표와 같음.

서 50대 초반으로 바뀌었으며,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한데 반해 젊은 층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표 5).

위와 같은 仲買人의 高齡化 현상은 근본적으로 仲買人이 허가제로 되어 있어 流動性이 적은 데에 기인하지만, 仲買人은 일반인과 달리 낮과 밤이 뒤바뀐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것도 주요

한 원인이다.

仲買人의 연령별 1인당 월평균 거래규모는 30세미만 仲買人계층의 평균 거래규모가 가장 높으나 이들 仲買人이 9명에 불과하여 특정인의 去來額이 평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할 때, 40~44세계층 仲買人의 월평균 거래액이 79,997천원으로 가장 높고 60~69세 계층 仲買人의 거래규모가 63,325천원으로 가장 낮다. 또한 전체 仲買

표 6 중매인 연령별 월평균 거래규모

단위: 천원

연령별	과실	채소	수산물	계
30세 미만	83,494	62,840	145,281	92,632
30 - 34세	74,447	86,704	49,663	72,461
35 - 39세	66,215+	94,420*	89,660*	78,737
40 - 44세	76,816	86,613	76,319	79,997*
45 - 49세	71,242	88,309	64,611	75,972
50 - 54세	78,032*	83,224	68,210	77,913
55 - 59세	70,429	73,557	60,175	69,361
60 - 69세	67,099	70,177+	41,311+	63,325+
70세 이상	110,012	64,886	78,377	75,543
전체평균	73,077	81,422	67,050	75,003

주: *은 최대취급액, +는 최소취급액 계층을 표시함. 다만 30세미만과 70세이상 계층은 표본수가 매우 적어 특정인의 거래액이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함.
 자료: 앞 표와 같음.

인의 1인당 월평균 거래규모 75,003천원보다 거래규모가 높은 계층은 35~54세의 壯年階層에 집중되어 있고, 55~69세의 비교적 고령계층은 평균수준 이하이다.

部類別로 보면, 채소와 수산물 仲買人は 35~39세의 비교적 젊은 階層이 최고, 60~69세의 고령계층이 최소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과실류는 壯年계층인 50~54세 계층이 최고, 비교적 젊은 계층인 30~35세 계층이 최소규모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볼 때, 비교적 부패성이 강하고 취급하기 어려운 채소 및 수산물은 젊은 階層의 仲買人에게 유리하며, 과실류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중매인에게 유리한 듯하다. 결론적으로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젊은 계층의 仲買人 평균 取扱規模가 高齡階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고,

仲買人の 活性化를 위해서는 젊은 계층의 중매인을 보다 많이 유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6>.

한편 1993년말 활동중인 중매인 1,491명의 1인당 월평균 거래규모는 75,003천원이며, 채소중매인의 취급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산물중매인이 영세한 편이다. 仲買人の 거래규모는 일반적으로 영세하여 77.1%의 중매인이 월평균 1억원 미만을 취급하고 있다<표 7>. 日本의 경우, 우리 나라 중매인에 해당되는 仲都賣業者의 1인당 연간 취급액은 청과물 844백만원, 수산물 614백만원으로 상당수의 仲都賣業者가 法人化되어 있어 비교적 거래규모가 큰 편이다<표 8>.

農安法상 指定都賣法人은 産地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고 仲買人は 수집상장된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소매상에게 분산하는 기

표 7 월평균 거래규모별 중매인 현황

단위: 명(%)

거래규모별	과 실	채 소	수 산 물	계
(백만원)				
25미만	7(1.5) (1.5)	13(2.0) (2.0)	104(26.0) (26.0)	124(8.3) (8.3)
25-40	72(15.7) (17.2)	122(19.3) (21.3)	90(22.5) (48.5)	283(19.0) (27.3)
40-60	140(30.6) (47.8)	155(24.5) (45.8)	58(14.5) (63.0)	352(23.6) (50.9)
60-80	96(21.0) (68.8)	105(16.6) (62.4)	42(10.5) (73.5)	245(16.4) (67.3)
80-100	57(12.4) (81.2)	65(10.3) (72.7)	23(5.8) (79.3)	145(9.7) (77.1)
100-150	54(11.8) (93.0)	103(16.2) (88.9)	44(11.0) (90.3)	201(13.5) (90.5)
150-200	19(4.1) (97.2)	39(6.2) (95.1)	19(4.8) (95.0)	77(5.2) (95.7)
200이상	13(2.8) (100.0)	31(4.9) (100.0)	20(5.0) (100.0)	64(4.3) (100.0)
계	458(100.0)	633(100.0)	400(100.0)	1,491(100.0)
평균거래액 (천 원)	73,077	81,422	67,050	75,003

주: ()내의 앞부분은 구성비(%)이며, 뒷부분은 누적구성비(%)임.
자료: 앞 표와 같음.

표 8 일본 중앙도매시장 취급규모별 仲都賣業者 현황, 1991

단위: 명

부류별	업 자 수		취 급 규 모 별					평 균 (백만원)
	총 수	그중법인	1억엔 미 만	1-5억엔 미 만	5-10억 엔 미만	10-20억엔 미만	20억엔 이 상	
청 과	2,524	2,221 (88.0)	148 (5.9)	848 (33.6)	573 (22.7)	412 (16.3)	240 (9.5)	844
수 산	3,736	3,084 (82.5)	335 (9.0)	1,443 (38.6)	718 (19.2)	365 (9.8)	223 (6.0)	614

주: ()내는 구성비(%)임.
자료: 農林水産省 食品流通局 市場課, 「都賣市場の 現状と課題」, 1993. p.37.

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仲買인이 수집 위주의 기능을 하는 委託仲買人이며, 이들의 기능은 指定都賣人と 중복되므로, 앞으로는 중매인이 정상적으로 분산기능을 수행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행위 유형별

로 중매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장차 중매인 육성정책에 매우 중요하다.

상행위 유형별로 중매인의 분포를 살펴보면<표 9>, 1993년 전체 중매인의 55.2%에 해당하는 823명은 競賣를 통해 분산을 하는 전형적인 分散仲買人인데 반해, 4.2%에 해

표 9 상행위 유형별 중매인 분포, 1993

취급량중 경매율	단위: 명 (%)			
	과 실	채 소	수 산	계
0%	-	53(8.4)	10(2.5)	63(4.2)
0-20%미만	-	126(19.9)	13(3.2)	139(9.3)
20-40%미만	-	46(7.3)	47(11.7)	93(6.2)
40-60%미만	-	61(9.6)	16(4.0)	77(5.2)
60-80%미만	-	65(10.3)	15(3.8)	80(5.4)
80-100%미만	4(99.1)	139(22.0)	73(18.3)	216(14.5)
100%	454(0.9)	143(22.5)	226(56.5)	823(55.2)
계	458(100.0)	633(100.0)	400(100.0)	1,491(100.0)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당하는 63명은 경매에는 참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집기능만을 하는 중매인이다. 대체로 69.7%의 중매인은 분산 위주의 정상적인 仲買人の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13.5%는 產地蒐集 및 委託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집과 분산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편 仲買人の 상행위 유형은 部類別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과실 仲買人は 대부분 분산위주의 정상적 상행위를 하는데 반해, 채소중매인은 비교적 산지수집 및 위탁 중심의 수집중매인이 많다. 수산물 중매인은 채소 중매인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 상당수가 아직도 수집 및 위탁 중심의 상행위를 하고 있다.

4. 仲買人の 競爭構造

4.1. 市場構造 분석의 의의

仲買人は 도매시장에 출하된 대부분의

상품을 구입하는 거의 유일한 商人집단이므로 중매인의 競爭構造는 도매시장의 市場構造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베인(Bain)은 「産業組織論(Industrial Organization)」에서 어떤 産業의 構造(Structure)와 산업내 企業의 行爲(Conduct)와 企業의 成果(Performance)간에는 예측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규정한 S-C-P 모델을 제시했다(Purcell 1979, 64). 즉 어떤 산업의 市場構造는 기업의 行動에 영향을 주며, 기업의 행동은 성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公共政策은 바람직한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市場構造를 유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市場構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指數化가 필요하다. 經濟理論에서 完全競爭과 完全獨占의 두 극단적 유형의 市場構造가 갖는 속성은 일단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寡占시장에서는 기업간 행동양식에 관한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그 시장성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寡占시장 성과의 선형적 不確實性은 寡占시장의 특징으

표 10 지정도매법인별 중매인 거래규모 집중도 분석결과, 1993

법인별	CRk		Gini 계수	Herfindahl지수	Horvath 지수
	CR ₄	CR ₁₀			
서울	0.063006	0.138993	0.429584	0.005805	0.030533
농협	0.031637	0.043194	0.386008	0.000715	0.02454
중앙	0.051775	0.106149	0.382659	0.004437	0.025815
동화	0.057568	0.121635	0.349302	0.00546	0.029266
한국	0.057995	0.120674	0.369233	0.005138	0.027202
총계	0.01606	0.034749	0.385507	0.001118	0.006455

로 인정해야 한다. 과점시장의 成果는 개별 시장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겠지만, 構造論的(structuralist) 견해에 의하면 구조와 성과간에는 函數關係가 있으며, 이러한 함수관계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통계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구조를 數值化하는 계측이 필요하다.

특정시장의 경쟁도가 어느 정도에 달하면 完全競爭市場에서 기대되는 이론적 成果를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낼 수 있는 有效競爭(effective competition)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것이 함축하는 바 대로 競爭도가 상승할수록 市場成果가 完全경쟁시장의 성과에 線型的으로 접근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市場構造를 수치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시장구조를 指數化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구조의 多元的 성격을 單一次元으로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며, 指數의 차이 자체로서 企業行動과 市場成果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李奎億 외 1984, pp.55-56).

4.2. 市場構造 분석방법

市場構造를 計量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指數化가 필요하며, 시장구조는 일반적으로 集中指數(concentration index)에 의해 분석되고, 이 指數는 企業의 수와 규모에 의해서 측정되며,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薛仁竣 1984, pp.24 ; 李奎億 1984, 68-79). 본연구에서는 指定都賣法人으로부터 보고된 仲買人의 거래실적 자료를 기초로 上位 4대 및 10대 중매인 集中率(CR₄ 및 CR₁₀), Gini 집중지수(G), Herfindahl 지수(H) 및 Horvath 지수(CC)만을 분석했다.

4.3. 분석결과

앞에서 설명한 각종 집중지수들을 청과물 취급 중매인에 대해 指定都賣法人(공판장 포함)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指數에서 農協共販場이 指定都賣法人에 비해 集中度가 낮게 나타났다. 즉 農協共販場은 중매인간 거래규모의 不均等도가 指定都賣法人에 비해 적으며, 시장구조상 보다 競爭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표 11 지정도매법인별 청과물 부류별 중매인 집중도 비교분석, 1993

구 분		CRk		Gini 계수	Herfindahl지수	Horvath 지수
법인별	부류별	CR ₄	CR ₁₀			
서울	과 실	0.125444	0.264844	0.412746	0.013544	0.066129
	채 소	0.097301	0.213008	0.438399	0.009639	0.046857
농협	과 실	0.131861	0.256551	0.292782	0.014692	0.064793
	채 소	0.154728	0.293855	0.475849	0.016398	0.085109

다. 지정도매법인간에는 指數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청과가 가장 높고, 중앙청과가 가장 낮다. 이는 서울청과의 중매인간 거래규모의 不均等度가 가장 크고, 중앙청과가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며, 시장構造상 중앙청과가 보다 경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仲買人은 부류별로 開設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다. 따라서 취급하는 상품부류가 같으면 동일한 都賣市場의 指定都賣法人간 또는 도매시장간에도 경쟁관계가 성립되지만 동일한 指定都賣法人내에서도 취급하는 상품의 부류가 다르면 상호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集中度가 가장 낮은 農協共販場과 가장 높은 서울청과를 대상으로 仲買人의 부류별 집중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부류별 仲買人의 집중도지수가 전체 중매인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류별로는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실류에서는 農協共販場의 집중도가 서울청과에 비해 낮은 반면, 채소류는 오히려

農協共販場이 높게 나타나 品目에 따른 市場構造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실류 仲買人의 집중도를 면밀히 검토하면 상위 k 企業의 절대적 점유율을 나타내는 CR₄는 서울청과에 비해 農協共販場이 높고, CR₁₀은 農協共販場이 낮으며, 기업수와 관계없이 취급규모의 상대적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Gini 지수는 農協共販場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農協共販場의 중매인수가 적고 취급규모 최상위 仲買人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 비해 전체적인 취급규모의 차이는 적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표 11).

더욱이 仲買人은 部類別로 전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品目別로도 專門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취급품목의 전문화는 채소류 仲買人이 뚜렷하며, 품목별 취급중매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표 12). 이는 도매시장 거래에 있어 경쟁을 제약하여 중매인이 獨占力을 발휘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都賣市場의 중매인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을 대

표 12 지정도매법인별 주 취급품목별 중매인수¹⁾

	서울청과	농협(공)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계
무 배 추	31	3	11	34	18	97
오 이 호 박	17	19	13	22	22	93
고 구 마 감 자	6	12	6	22	19	65
상 추	10	4	15	6	25	60
채 마 늘 생 강	6	10	2	9	30	57
건 고 추	7	11	1	18	5	42
양 파	8	2	7	6	17	40
양 채 류	10	1	4	6	9	30
당 근	6	6	2	8	3	25
과	6	1	4	9	4	24
소 우 영 연 근	2	1	1	1	-	5
기 타 ²⁾	13	2	16	29	33	93
소 계	122	72	82	170	185	631
과 실	106	78	126	75	77	462
합 계	228	150	208	245	262	1,093

1) 1993년 10월 기준으로 중매인수가 1993년말과 틀림. 중매인의 취급품목은 시황변동에 따라 유동적임.

2) 부추, 버섯 등 소량품목 취급자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型化·法人化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을 취급토록 유도하고 仲買人間에 보다 유효한 경쟁을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 및 가격형성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仲買人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商行為와 競爭構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으로 仲買人의 流動性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젊은층이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인해 중매인의 老齡化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활동성을 극히 요구하는 중매인의 직업특성을 고

려할 때 장차 도매시장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연령별 거래규모의 분석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高齡階層에 비해 젊은 계층의 거래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仲買人의 연령과 상활동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仲買人의 노령화를 억제할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日本과 비교할 때 중매인의 거래규모는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仲買人의 77.1%가 월평균 1억원 미만을 취급하고 있다. 만약 仲買人 수수료 4%를 적용한다고 할 때, 월간 1억원을 취급하는 중매인의 수입은 월 4백만원이며 이는 현재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할 때 점포운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중매인의 영세성은 중매인의 높은 매매차익으로 이어져 유통마진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仲買人の 規模化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래실적이 부진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중매인은 탈락을 유도하여 중매인의 유통성을 높여 고령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중매인의 規模化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仲買人の 法人化를 통해 高齡化에 대응하는 동시에 規模化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仲買人の 수와 중매인간 거래규모의 분포는 중매인의 경쟁구조를 나타내며, 이는 또한 도매시장의 市場構造를 나타낸다. 각종 集中度 指數를 통해 중매인의 경쟁구조를 분석한 결과, 청과물의 경우 農協共販場이 指定都賣法人에 비해 집중도지수가 낮게 나타나 중매인간 不均等度가 낮아 市場構造상 보다 경쟁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指定都賣法人간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청과의 集中度 指數가 높고, 중앙청과가 낮게 나타났다.

集中度 指數가 가장 낮은 農協共販場과 가장 높은 서울청과의 중매인을 대상으로 각종 집중도 指數를 분석한 결과, 부류별 仲買人の 집중도지수가 전체 중매인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仲買人 구성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 분야의 보다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과실류는 서울청과가 農協共販場에 비해 낮은 반면 채소류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 중매인의 수와 취급규모 구성에 부류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指定都賣法人別 部類別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매인의 경쟁구조를 고려할 때 중매인의 主취급품목이 專門化되

어 있어 중매인이 독점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채소류와 수산물의 경우 중매인의 취급품목 전문화가 심하다. 중매인의 專門化에 따른 도매시장의 중매인간 경쟁성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매인의 法人化를 통해 중매인의 規模化와 함께 취급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仲買人の 상활동과 경쟁구조분석을 자료의 제약상 1993년에 국한했으며, 축산물 중매인은 제외했다. 따라서 橫斷分析의 제약으로 경쟁구조의 변화추세는 제시하지 못했다. 장차 이와 같은 연구가 누적되어 時系列分析을 통한 중매인의 상활동 및 경쟁구조를 분석한다면 仲買人 육성에 필요한 보다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분야의 계속적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993년 농수산물 가격동향」, 1994. 3.
- 農林水産省 食品流通局 市場課, 「都賣市場의 現狀と 課題」, 1993. 4.
- 成培永 외, 「可樂洞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管理運營方案 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薛仁竣, “乳加工産業의 市場構造分析,” 「1984년도 冬季學術發表 論文集」, 한국식품유통학회, 1984.
- 李奎億 외, 「市場과 市場構造」, 한국개발연구원, 1984.
- 정찬길, “도매시장 거래정착을 위한 중매인 육성방안,” 「都賣市場發展에 관한 세미나」, 한국농산물중매인조합연합회, 1992. 6.29.

Purcell, Wayne D.,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s, Coordination, Cash and*

Futures Prices. Reston Publishing Co. Inc., Reston, Virginia, 1979